|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름 | 정다솔 | 영문 | Dasol Jung | 한문 | 鄭다솔 | |
|  | 휴대폰 | 010-8758-4607 | | | 나이 | 26 | |
|  | E - mail | ho8181212@naver.com | SNS | Blog/ Twitter/ Facebook | | |
|  |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구로 4길 36 B동 10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력사항(최종학력:OO대학교(4년) 졸업) | | | | | | |
| 재학기간 | | | 학교명 및 전공 | | | 구분 |
| 2016.03.02 | | | 동덕여자대학교 컴퓨터학과 (본전공) | | | 졸업예정 |
| 동덕여자대학교 독일어과 (복수전공) | | |
|  | | | | | | |
| 활동사항 | | | | | |
| 기간 | | | 활동 내용 | 활동구분 | 기관 및 장소 | |
| 2021.11 ~ 2022. 04 | | | 파이썬 심화와 AI에 대한 교육 | 취업교육 | 러닝핏 | |
|  | | |  |  |  | |
|  | | | | | | |
| 어학 자격증 | | | | | |
| 언어 | | | 시험 | 점수 | 기관 | |
| 독일어 | | | B1 | 듣기 합격 | Telc | |
|  | | |  |  |  | |
|  | | | | | | |
| 어학연수 | | | | | |
| 기간 | 과정명 | | 기관 | | |
| 3개월 | 독일어 공부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인)

|  |
| --- |
| 성장과정 |
| 초등학생때부터 기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스스로 라디오나 MP3를 분해하고 조립해보는 일을 자주 했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기계에 대한 관심보다 그 안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때부터 개발자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친구들과 기술영재반이라는 동아리에서 다양한 대화도 나가보고 교내 해커톤을 진행하여 밤새 개발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혼자 해결하던 중학생때와 달리 대회나 해커톤을 진행하면서 친구들과의 의견 마찰이 생겼을 때에도 중간에서 의견 조율을 하여 일을 진행했습니다. 비록 외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친구들과 어플을 구상하고, 디자인하고, 코딩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성취감으로 남아 대학 역시 컴퓨터 학과로 진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 성격과 강점, 단점 |
| 저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수용하는 태도가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 지적 받았을 때 ‘아 경력이 많은 분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말해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점을 어떻게 고쳐서 발전시켜 나갈지 생각하고 실행합니다. 또한 저는 성실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일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그 일에 점점 흥미가 생기고 애정이 생기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책에 푹 빠져사는 친구들과 함께 독서 동아리를 했을 때 책 읽기가 너무 싫었어도 하루에 20장~30장씩 읽으니 점점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책에 대한 애정도 깊어져 결국 지금은 저도 그 친구들처럼 책을 아주 즐겨 읽는 귀중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일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며 과제를 수행하거나 일을 진행하여 낭패를 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겪고 난 후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급한 성격을 보완할 수 있는 태도가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했고 이제는 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와 일이 어떻게 진행 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며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급한 성격이 한 때는 저의 큰 단점이었지만 지금은 좀 더 계획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
|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 |
| 저는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컴퓨터학과를 전공하면서 복수 전공으로 독일어를 시작했고, 운동에도 관심이 많아 성인이 된 이후부터 태권도와 합기도를 배우며 체력을 길러나가고 있습니다. 배움에 즐거움과 욕심이 있는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성취감을 느꼈고, 배운 것을 잘 소화하지 못할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해하고 몸에 체득하는 끈기로 새로운 배움들에 도전해왔습니다. 저의 이런 끈기와 배움에 대한 열정이 메타버스와 AI흐름에 맞물려 무궁무진한 성장과 발전이 기대되고, 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sw개발 분야가 적성에 잘 맞는다고 느꼈고, 귀사의 해당 직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주로 웹개발과 관련된 수업노선을 따라서 HTML, CSS, Javascript, Java, SQL, Linux 등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홈페이지 개발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들으면서는 주 수업에서는 Python과 딥러닝을, 멘토링에서는 Docker, Linux 등 백엔드에 관련된 것을 배웠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코딩하는 과정은 비슷해서 Python을 배울때는 큰 어려움 없이 진도를 나갔지만 Docker와 딥러닝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를 좀 더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서 주말에는 주로 Docker를 배우는 동기들과 함께 외국 유튜버들이 정리한 Docker관련 영상을 보거나 구글의 문서를 읽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따라해보며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이러한 노력과 배움들을 귀사의 업무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일하며 배우는 태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리즘 능력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문제 해결능력을 사용하여 제 자신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며 내부 구성원들과 소통하여 발전하는 개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